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상하이보험거래소 설립 본격 논의

- 최근 상하이시는 다양한 보험기구가 모여 상품 및 자산 등을 거래하는 보험거래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최근 상하이시 부시장 루광샤오(屠光绍)는 한 세미나에서 상하이시에서 보험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,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지원 하에 사전 연구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언급함.
 - 그는 이 자리에서 상하이보험거래소는 다양한 보험기구들이 모든 형태의 보험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는 영국 로이드사를 기본 모델로 탄생할 것이며, 중국보험시장이 진정한 국제보험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함.
 - 구체적으로는 우선 설립 초기에는 재보험 위주로 운영하고,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보험자산 및 보험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함.

- 전문가들은 상하이 보험거래소를 통해 증권화된 보험자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
 - 상하이시는 현재 증권, 선물, 및 금거래소 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험거래소가 들어설 경우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- 또한 상하이 보험거래소를 통해 재보험을 기반으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거래가 아닌 보험회사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.
 - 그러나 초기단계인 재보험 거래의 경우, 현재 재보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중국 재보험사의 자본력이 크게 부족해 활발한 거래가 가능할지 미지수이고, 보험기술 및 재보험중개인 등 관련 전문인력도 모자란 상황임.
 - 또한 보험거래소가 위험을 증권화하여 판매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지만, 위험의 증권화가 선진국에서조차 아직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음.

(매일경제신문, 중국증권보, 7/6)